

◆불교관련 상담기관

Table with 3 columns: 분야 (Field), 기관명 (Institution Name), 연락처 (Contact Info). Lists various Buddhist counseling cente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Seoul, Gyeonggi, and Jeonju.

Hyundai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I 불교상담 현황

고민·신행 공금증 함께 풀어요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나란히 설립된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명상심리학과·상담심리학과와 선상담연구원이 불교 상담전문가 양성에 나서기로 하는 등 포교 및 복지 한 방향으로 불교 상담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사찰에 한정되어 있던 신행상담실도 불교교양대학, 신행단체 등으로 보급되고 있다. 특히 60여개에 달하는 교계 복지관들도 저마다 가정 폭력문제, 성폭력, 자녀교육 문제, 가정 법률문제 등까지 범위를 넓혀 상담활동을 펴고 있어 복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불교상담은 신행의 동반자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교의 방편이 되고 있는 셈이다.

● 상담 현황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비의 전화 12주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결려온 총 상담건수가

일반 시민들이 사찰을 방문하다 보면, 법담 문이 열려있어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자유롭다. 하지만 절의 역사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 때는 그렇지 못하다. 불교에 대해 묻고 싶어도, 그 사찰의 신도가 되고 싶어도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공간도 없다.

이웃 종교들은 절에 들어와서도 선교를 하려 하는데, 불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차 외면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 자신의 인생을 불교적으로 해결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지 못한 것은 불제자의 '죄무유기' 나다름이다.

사찰·단체·복지관 등 상담활동 활발
작년 4,924건... 전년보다 1,550건 증가
재원·봉사자 확충, 정신적 복지 서둘러

4,924건으로 재작년 3,374건에 비해 무려 1,550건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종교 문제 상담 건수는 178건에서 140건으로 38건이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교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이들이 불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많다는 반증으로 전화상담이 포교에 일조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현재 불교계의 상담관련 시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100여 곳이 넘는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신행상담소가 10여곳, 전화상담 기관이 10여곳, 가정 및 여성관련 기관이 20여 곳, 청소년 및 아동관련 기관이 15곳에 이른다. 전문상담소를 비롯한 상담교육, 노인, 인권, 세무법률, 실직, 결혼관련 상담기관도 각 5

곳씩이 넘는다.
● 왜 불교 상담인가
불교와 상담의 친연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부처님의 설법은 내담자가 해결해야 하는 괴로움의 진술을 출발로 한다는 점. 둘째, 부처님과 내담자와의 의사소통은 당면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셋째, 부처님은 내담자의 변화에 기여하는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상담자란 점. 넷째, 부처님은 대기설법, 방편시설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내담자의 통찰을 도와주어 이를 통해 무명을 타파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불교상담은 개인에 대한 문제, 즉 '자아'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본질적 입장에서 현대적인 심리학적 상담에도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어렵든, 불교의 정신에 부합되는 원리나 방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불교상담'으로 볼 수 있다.

● 불교상담의 역사

불교계에서 상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자비원에서 '자비의 전화'를 개설하면서부터다. 이후 부산 '자비의 전화' (84년), '희망의 전화' (85년), '수호사 자비의 전화' (87년), 광주자비원 상담전화(90년), 제주 '자비의 전화' (92년), 한국불교청년회 마음의 전화(96년) 등이 잇달아 개설됐다. 88년 불광사 무료법률 상담소와 90년 조계사 무료법률 상담소가 생기면서 비공식적인 신행상담만 실시해 온 사찰들이 법률, 세무,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시작했다.

2년전 발족한 불교상담개발원과 여성불교연합회가 정기 상담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면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늘고 있다. 앞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의 불교명상심리학과 및 상담심리학과와 선상담연구원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불교 상담사들이 배출될 전망이어서 불교상담의 저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과제
사찰과 복지, 신행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담을 비롯한 '정신복지'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 상담복지를 활발히 펼칠 수 없는 데에는 재정 부족, 자원봉사 확보의 어려움, 스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승가원 원장 현각스님은 "노인, 청소년, 부녀, 법률, 소비자 상담 등 분야별 상담기관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요원과 시설을 갖추 수 있어야 한다"며 "스님들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상담자를 맞는다면, 사찰의 환경 조건과 스님들의 신뢰성이 가장 좋은 상담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였다

경전 속 상담

각계각층 사람들 질문에 응답
잠재력 일깨워 해탈의 세계로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남의 잘못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히 마무리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남의 잘못을 들을 때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들추려는 잘못이 사실이어야 한다. 둘째 때에 맞아야 한다. 셋째 이치로 이익을 줘야 한다. 넷째 부드럽고 연하여 추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사랑하는 마음이어서 성내지 않아야 한다." (잡아함경)

<잡아함경> 등 초기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은 위대한 종교 창시자라기보다 인자한 어머니, 자상한 아버지 같은 분이였다. 투정을 부리려만 받아 주고, 몸이 아프면 찾아와 위로하고, 따지고 들거나 속이고 욕을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자비로써 잘못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경전속의 대화 하나하나가 마치

오늘날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담 장면 같다. 부처님은 어떤 질문자에게도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토록 해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위대한 상담가였다. 경전 곳곳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 국왕, 성직자, 부녀자, 살인마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상담사제가 엿보인다.

부처님의 상담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듯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 △구체적인 방안 제시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와 방편 사용 △취급 있는 용모를 통한 감화 등 부처님의 상담자적 기질 때문이다. 불자들을 바른 행동으로 이끌고 마음을 안정시켜, 해탈로 이끄는 것이 부처님의 상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경 기자

사찰·단체 홈페이지 이용 활발

사이버 상담

'자비 24시' 비밀보장 1:1 상담
부다피아·달마넷 등 교리문답

인터넷이 보편화된 요즘, 불교계 사이버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개설된 사찰 및 신행단체 홈페이지의 신행상담 코너에 많은 불자들이 신행생활 중 겪는 의문점을 물어오고 있는 것. 직접 상담자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인터넷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인터넷 상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의 사이버상담실 '자비24(jabi24.org)'다. 이곳은 '열린상담' '메일상담' '비밀상담'으로 나뉘어져 불교교리와 수행상담 뿐 아니라 법률,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하고 있다.

상담실이 개설되어 있는 불교계 포털 사이트로는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부다피아와 달마넷,

불곰닷컴 등이 있다. 부다피아는 신행상담 뿐만 아니라 건강, 법률, 세무 상담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은 "40대 이상의 상담도 늘고 있어 앞으로 인터넷 상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Table with 2 columns: 사찰 및 단체 (Sect and Org), 사이트 주소 (Site Address). Lists various Buddhist organizations and their websites.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자 (주)수신토종오 대표 / 성광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식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꿈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면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 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문의전화 (02)446-4422